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30호는 ‘사회적 경계와 문화적 차이’ 특집을 통해 이주, 다문화사회, 사회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김정옥은 「다양한 사회적 경계와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 피터 잭슨(Peter Jackson)의 복합적 정체성을 중심으로」에서 백인 중간계급의 가치를 수용하고 인종예외에 순응했던 복서 피터 잭슨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정옥은 길 들여진 흑인 남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주체적 행위력을 결여한 흑인으로 평가되어 왔던 잭슨이 사실 여러 사회적 경계를 활용하여 인종 경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던 능동적인 주체였다고 주장한다. 김정옥에 따르면 잭슨은 계급경계, 국민경계, 젠더경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인종경계를 약화시키려 한 주체였으며, 정체성의 다변화가 촉진시키는 순응 속에 자주 저항을 보여줬다. 김정옥은 잭슨의 경우는 개인의 행위가 저항과 순응의 이분법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효근의 「토박이와 이주민: ‘주네브의 아이들’은 왜 실패했나?」는 주네브 종교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1555년의 폭동과 이로 인한 페랭파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 박효근은 종교적 이유로 망명을 선택한 유럽 전역의 난민들이 대규모 유입됨에 따라 당시 주네브에서는 제노포비아 현상이라 할 만한 외국인혐오가 만연하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토박이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던 페랭파가 1555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이후 폭동의 주동자로 몰려 주네브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논문에 따르면 페랭파는 토박이 주민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처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벌족으로 인식되면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효근은 페랭파의 몰락과 칼뱅파의 승리는 칼뱅파가 내세운 것처럼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되기보다, 파벌 사이의 갈등과 대안 세력의 존재라는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홍상현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에스닉·문화적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상현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에서 일어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사건에 주목한다. 대구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한 방편으로 소셜 미디어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들

의 의견을 피력했다. 홍상현에 따르면 이슬람 커뮤니티의 소셜 미디어 활동은 사회 일반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용보다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 홍상현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대구 주민과 이슬람 커뮤니티 대립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홍상현은 주민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의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그럴 경우 소셜 미디어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의견 수립과 토론의 수단이자 합리적인 조율을 생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영현은 「이주서사로서의 『파친코』(Pachinko) 연구」에서 인물에 관한 정체성 찾기, 실존적 특성 형성, 새로운 정체성 발현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파친코』의 핵심 주제 ‘집(고향) 찾기’를 다룬다. 신영현은 『파친코』가 보여주는 재일조선인(자이니치) 서사로서의 특징과 이주문학(디아스포라 문학)적 특징 및 트랜스내셔널리즘 주제의 차이에 주목한다. 신영현은 분석을 통해 어느 민족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내미는 배려의 손길이야말로 집(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임을 확인한다. 최강화의 「이주 목적국의 매력지표와 순이주율 간의 필요조건 분석」은 개별 국가의 다양한 이주 매력요인과 순이주율 변경 간의 필요조건을 분석한 연구이다. 최강화는 글로벌 이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의 인간개발지수, 여권파워지수 그리고 취약국가지수와 같은 글로벌 이주의 매력요인들과 개별 국가의 순이주율 간에 존재하는 필요성 논리를 분석하여, 국가의 인간개발지수와 여권파워지수는 순이주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원인조건이고 취약국가지수는 순이주율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 원인조건임을 확인했다. 최강화의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개별 국가의 이주 매력요인을 대용하는 지표들과 순이주율 간의 이론적 관계를 정량화하고, 실무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글로벌 시민의 순이주에 반드시 필요한 원인조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호모미그란스』 30호는 다문화 교육, 서구 식민 경험과 관련된 일반논문 4편을 소개한다. 김현주의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논문은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

민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자의 적응 노력은 물론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한다. 김현주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다문화 교육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김현주는 어렸을 때부터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며,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 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재원은 「식민지 학술 단체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100주년」 논문에서 식민지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의 역사를 살펴본다. 제국주의 시대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탄생한 해외영토학술원은 식민지 압력단체(parti colonial) 혹은 식민지 선전단체로서 2023년 5월 26일, 소르본 대학 대강당에서 해외영토학술원은 전현직 국가 원수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 지식인과 연구자, 경제 지도자, 예술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한 모임을 통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이재원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학술 단체로 시작한 해외영토학술원이 공식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한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식민지 문제를 언급하는 주요 학술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국주의의 잔재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하영준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카리브의 탈식민주의 사상: 데릭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데릭 월컷(Derek Walcott, 1930-2017)이 역사 희곡 《아이티 삼부작(Haitian Trilogy)》에서 아이티 혁명을 카리브 탈식민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에서 재현했는지 분석한다. 하영준에 따르면 월컷의 초기 두 작품, 《앙리 크리스토프(1949)》와 《북과 색(1958)》은 국내외적으로 식민지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반식민주의 문제 공간에서 등장했으며, 《아이티 대지(1984)》는 1960년대 카리브의 국가들이 독립 이후 공통으로 겪었던 위기에서 초래된 탈식민주의적 전환과 관련된다. 하영준은 아이티 혁명을 주제로 한 다른 카리브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월컷의 작품이 보여주는 탈식민주의적 전환의 의미와 내용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김우유의 「루이 베르트랑과 식민 파시즘」 연구는 식민주의와의 연관에 한정되어 논의됐던 루이 베르트랑의 이념과 믿음을 파시즘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필요

성을 주장한다. 김용우는 유럽의 파시즘과 식민주의가 별개의 현상이라는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전제를 비판하면서 베르트랑의 식민지 알제리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베르트랑에게 식민지 알제리는 적개심, 재야만화 그리고 새로운 인종의 탄생과 같은 배제와 증오, 동원의 이념을 다듬고 버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용우는 논문 결론에서 베르트랑은 식민주의가 파시즘과 같은 폭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요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식민지 알제리를 식민 파시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한다.